

경북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지정

- 베어링 관련 선도기업, 연구기관, 대학 등 산·학·연 집적
- 연구개발, 생산, 기업지원편의 등 베어링 제조기업 집적화 단지 조성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8월 25일 경북 영주시에 베어링산업이 특화된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(118만㎡)을 승인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.

<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사업개요 >

- (위 치) 경상북도 영주시 적서동 산44 일원
- (면 적) 1,185,971㎡
- (사 업 비) 2,337억원(용지비 592억원, 조성비 1,745억원)
- (유치업종) 1차 금속제조,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, 전기장비 제조 등
- (사업시행자 및 기간) 경상북도개발공사, 2023년 ~ 2027년

- 영주시는 베어링 관련 선도기업*, 연구기관**, 대학*** 등 산·학·연이 집적된 지역이며, 주변에 다수의 산업단지가 위치하여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집적효과를 통한 시너지 창출로 “생산-연구개발-기업지원-편의” 제공 등 베어링 제조기업 집적화단지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된다.

* 베어링아트, ** 하이테크베어링시험평가센터, *** 동양대 베어링특성화학과

- 이번에 승인될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는 '27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경상북도개발공사가 금년 4분기부터 토지보상에 착수할 계획이며, 완공 시에는 57,827억원의 경제유발 효과와 3,756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- 국토교통부 김정희 국토정책관은 “수입의존도가 높은 소부장 핵심전략 품목인 베어링산업의 국산화 및 거점화를 실현하고, 동력전달 효율 개선을 위한 전기차용 저마찰 특수베어링, 우주발사체용 극저온 볼베어링, 풍력 발전용 장수명 대형베어링 기술개발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차세대 산업 국가성장 동력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국토정책관 산업입지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기용 (044-201-3674)
		담당자	사무관	송철현 (044-201-3702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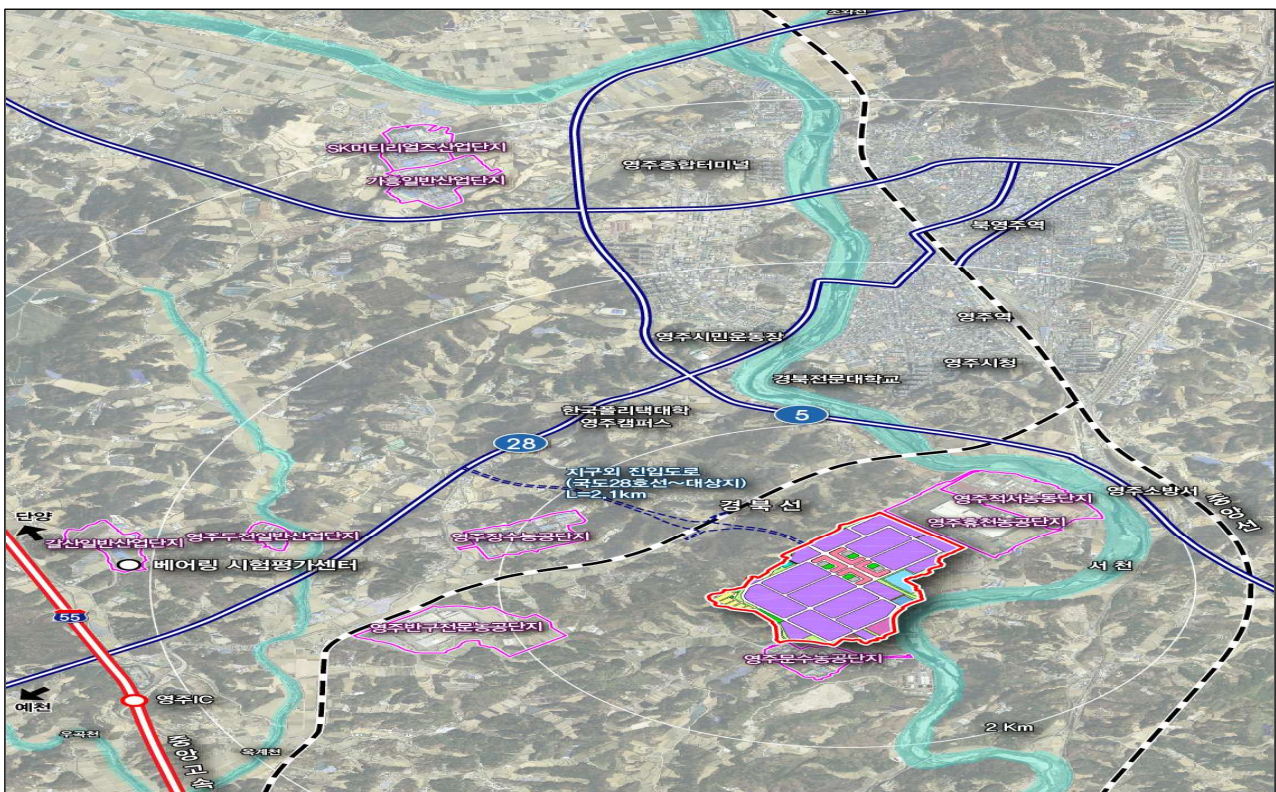
참고 1

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현황

□ 조감도



□ 위치도



□ 베어링 정의

- 회전하는 축을 지지하고 원활한 회전을 유지하도록 하며, 회전 또는 직선운동 시 축에 작용하는 하중 및 축의 자중에 의한 마찰저항을 가능한 적게 하도록 하는 기계요소
- 베어링은 구동계 부품을 활용하는 산업제품에 정밀성과 내구성 등 최종 제품의 성능을 좌우하기 때문에 모든 산업의 핵심구성 요소

□ 베어링산업 특성

-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없는 필수 기저산업으로서 수요산업의 기반이 갖춰진 후에 수요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병행 발전하는 특성을 가짐. 산업간의 전후방 연계효과가 크고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국가기간산업
- 신제품 개발에서 판매까지 장시간과 축적된 기술, 대규모 인프라 시설 투자가 필요한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이며, 소수의 해외 글로벌 기업이 시장을 과점

□ 베어링 종류

앵글러 볼베어링	원추형 롤러베어링	미끄럼 베어링
		
농동형 자기베어링	슬리브 베어링	직선운동 가이드
		